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농림부,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 지원 등 수용”

- 양돈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검토 결과 회신

본회가 지난 10월 양돈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함에 따라 농림부는 본회가 제시한 98개의 세부과제 등을 검토해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 방안 수립 및 축산업 등록제 등 양돈분뇨처리 지원 등의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본회가 제시한 돼지고기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우수브랜드 인증제도 마련 및 내실화 있는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운영 등의 사항,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운영개선, 우수 AI센터 인증제도 강화 및 HACCP 인증제도 도입, 종돈수출지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 돼지출하차량 지원, 양돈사료지원,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 방안 수립 및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축분퇴비·액비 이용 지원, 축산업 등록제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와 연계한 적정사육두수 유도 등 양돈분뇨처리 지원 등 58개 과제에 대해 수용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문화된 특화 브랜드 컨설팅 지원 및 양돈전용배합사료 공장 지원, 양돈 후계자 육성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본

회가 건의한 14개 과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으며, 생산이력시스템 시범도입,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지원 및 친환경 양돈업 직불제 사업에 있어서의 지원 확대 등 20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에 있어서 자조금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는 건의 사항 등 6개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PRRS·PED 등 2종 전염병 제외 요청

- 본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과도한 규제 개정 의견 제출

본회는 최근 농림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과 관련 가축전염병을 세분화하고 각기 질병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본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가축전염병을 제1종, 제2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질병이 1종 가축전염병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 받고 있으며, 돼지유행성설사나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등은 양돈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인데도 이 동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제역이나 돈열을 제1종 전염병에 적

용시키고, 돼지브루세라와 오제스키병은 제2종 전염병으로, 돼지일본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을 제3종 전염병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11조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해 전염성질병은 거의 모든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포함하므로 특정한 '가축전염병'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조와 관련 돼지 살모넬라의 경우에는 장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데 도축과정에서 장이 분리적출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에는 오염되지 않으므로, 식용 고기에 오염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돼지에 존재하고 이를 운반했다고 식육업자가 아닌 양축농민을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에 대해 소나 돼지의 폐에서 검출되는 파스튜렐라 균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이 질병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본회, 사료업체에 배합사료가격 인하 요구

- "국제 곡물가격 하락 및 안정된 환율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해야"

본회는 10월 26일 배합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우려해 농림부장관에 일선 사료회사에서 배합사료가격을 빠른 시일 내 인하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일선 양돈농가에서 국제 곡물가격

하락과 안정되고 있는 환율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를 희망함과 함께 경기둔화, 내수감소, 물가상승 등에 따른 하반기 돼지가격 하락에 대비해 배합사료가격을 인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본회는 한국사료협회장에게 사료업체와 양축농가는 공생 관계라는 점을 충분히 양지하고 양자간 발전적 성장을 위해 사료업체에서 배합사료가격을 조속히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 사료업체에는 배합사료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선진, 양돈산업 발전기금 3천만원 기탁

(주)선진(대표이사 이범권)이 11월 4일 본회를 방문하여 최영열 회장에게 양돈산업 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주)선진 김성훈 이사는 양돈산업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양돈생산자들의 단체인 본회가 구심점이 되어 건전한 양돈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한데 대해 최영열 회장은 "어려운 양돈산업을 위해 애써준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보내준 발전기금은 양돈산업을 위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115페이지 참조)

본회, 자조금 미납도축장 대처방안 모색

본회 전남·북도협의회 임원 및 경남·북, 제주도협의회 임원들과 그 지역 관리위원들이 각각 10월 26일과 27일 간담회를 갖고 자조금

납부 및 사료가격 대책 등과 양돈업계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10월 26일 본회 전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본회 최영열 회장(자조금관리위원장), 윤주성 부회장, 송정기 전북도협의회장, 최희태 전남도협의회장, 강경철 자조금관리위원, 김창섭 이사 및 박성재 이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조금 미납 도축장 현황을 보고하고, 미납 도축장에 최고 독촉문 발송, 징수 담당제 운영 등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전북도청 고문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자조금 위원과 도협의회장, 지부장 등이 함께 도청을 방문해 재차 협조 요청을 구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사료가격 인하 대책에 대해서는 곡물 수입권을 협회 또는 농가가 배정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10월 27일 경상남북도 간담회에는 본회 최영열 회장, 이재식 부회장, 이용모 경남도협의회장,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 박창식 이사, 이병규 자조금관리위원 및 김성찬 제주도협의회장, 권중철 이사, 하태식 이사, 유재환 감사가 참석했으며, 돼지전문 수송차량 지원 추진사업 등 양돈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돼지전문 수송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보조 비율이 너무 낮다며, 보조 비율을 높여야 운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현실적 악취방지법 우려”

- 원로양돈인 간담회에서 악취방지법 적극 대처 요구

11월 2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열린 원로 양돈인 간담회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과 김건태 명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양돈인들은 내년 2월중 시행예정인 ‘악취방지법’에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은 양돈농가의 현실에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악취해소 방안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원발발 등이 다발할 것으로 예상돼 양돈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법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원로 양돈인들은 국내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해 국제사료곡물가 파악에 나서는 한편 OEM 사료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등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뇨처리·악취 문제 효과적 대응책 마련키로

- 11월 11일 회장단 회의 개최



본회 회장단은 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 등 축산관련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축산환경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회장단은 11월 11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최영열 회장 및 김동환 부회장, 이병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축산환경대책위원회 위원 인력 구성(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제1종돈능력검정소 이전 추진 위원회 구성(안)을 검토하고, 추진위원(안)을 마련해 위원회는 검정소 이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아울러 본회가 제시한 양돈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의견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양돈자조활동 자금 사업에 있어서 자조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및 AI센터 용돈구입 비용 차등 보조지원 등 수용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를 설득하고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엘랑코 테리 클락 국제 홍보담당 등 본회 방문



엘랑코 동물약품 테리 클락 국제 홍보담당 총책임자와 토마스 슈락 항생제 내성 담당 전문 연구원, 한국 엘랑코동물약품 예재길 상무, 최효심 주임 등 4명은 10월 25일 본회를 방문해 최영열 회장 등을 만나 세계 양돈정세와 항생제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돌아갔다.

테리 클락씨는 최 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항생제 사용 제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식육에 위해 잔류물질이 남을 것으로만 막연히 생각해 항생제 사용을 규제한다면 질병 통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항생제별로 위해도와 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사용과 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전했다.

돼지고기 요리 베스트 10선 전시·시식회 개최

- 대도시 대형유통매장 소비자 대상 실시



▲10월 26일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하나로클럽에서 개최된 시식회

본회와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주관한 '돼지고기 요리 베스트 10선 전시·시식회'가 10월 23일(토)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 정문 앞과 10월 26일(화)과 11월 13일(토)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하나로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돼지고기 맥적, 돼지고기 밤말이 찜, 돼지고기 새송이 산적 및 복돈전 등 최고의 건강식으로 꼽히는 돼지고기 요리 베스트 10선의 실물을 전시하고, 돼지고기 맥적과 돼지고기 토속구이 시식회가 열려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돼지고기 소비확대의 일환으로 대도시 대형유통점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시식회는 소비자에게 가을·겨울철 건강식에 좋은 돼지고기 요리를 소개하고, 소비자 식생

활 관리 서비스와 함께 돼지고기 구매의사를 높여 소비확대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

양돈농가, 4분기 지육가 '2,700원~ 2,900원/kg' 전망

구분	단위	가격(원)
• 2,900원/9등급	kg	92(11.5%)
• 2,800원~2,700원/9등급	kg	129(16.3%)
• 2,700원~2,600원/9등급	kg	184(23.3%)
• 2,600원~2,500원/9등급	kg	130(16.5%)
• 2,500원~2,400원/9등급	kg	81(10.1%)
• 2,400원~2,300원/9등급	kg	51(6.5%)
• 2,300원/9등급 이상	kg	23(2.9%)

본회가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10월 2일 기준 전국 비육돈 돼지고기 시세가 지육 kg당 2천943원

으로 형성되어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3천원대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귀하는 10월 이후 4/4분기 비육돈 박피기준 돼지고기 평균가격이 지육 kg당 얼마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kg당 2천700원~2천900원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총 790명의 응답자 가운데 184명으로 23.3%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중 ▲2천500원/kg 이하 11.6% ▲2천500원~2천700원/kg 16.3% ▲2천900원~3천100원/kg 16.5% ▲3천100원~3천300원/kg 19.1% ▲3천300원~3천500원/kg 8% ▲3천500원~3천700원/kg 2.3% ▲3천700원/kg이상이 2.9%로 각각 집계됐다.

돼지 흉막 폐렴 및 바이러스성 설사병 피해 가장 커

본회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양돈농가에서 PMWS 이외에도 돼지 흉막 폐렴 등의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조사돼 이에 따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협회는 “귀

질병명	비율 (%)
• 바이러스성 설사병	51 (23.9%)
• 돼지 흉막 폐렴	29 (13.6%)
• 돼지 회장염	6 (2.8%)
• 돼지 폐렴	29 (13.6%)
• 돼지 회장염	7 (3.3%)
• 돼지 폐렴	19 (9.0%)
• 돼지 폐렴	8 (3.8%)
• 돼지 폐렴	4 (1.9%)

하의 농장에서는 PMWS 이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반 이상이

돼지 흉막 폐렴과 PED, TGE 등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양돈농가에서 돼지 흉막 폐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64명이 응답해 총 응답자 213명의 30%를 차지했으며, 바이러스성 설사병(PED, TGE 등)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51명으로 23.9%를 차지했다. 한편 돼지 유행성 폐렴과 글래서씨병이 각각 13.6%, 돼지 회장염이 7%로 각각 나타났으며, 대장균증(3.8%), 살모넬라병(3.3%)과 피부병(외부기생충병 포함 2.8%), 돼지 단독(1.9%)이 뒤를 이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90만원

10월20일(수) 본회 공인중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42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90만5천588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슈퍼돈 3두, 최우수돈 7두를 비롯해 총 136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유찰두수 없이 136두 모두 낙찰됐다.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98만1천304원(92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74만7천273원(44두)이었다.

한편 이날 삼우축산 등록 수컷(선발지수 280점) 최우수돈이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485-1번지 한미양돈 김현동씨에게 최고가인 270만원에 낙찰됐으며, 문경FINE 등록 수컷(선

발지수 285점) 슈퍼돈이 2백60만원에 낙찰되는 등 낙찰총액은 1억2천316만원이었다.

제2검정소, 검정돈 평균 낙찰가 98만 8천원

11월 10일(수)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71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낙찰가는 98만8천60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슈퍼돈 4두와 최우수돈 8두를 포함해 총 172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72두가 모두 낙찰됐다.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9만8천636원(132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2만5천500원(40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89점) 슈퍼돈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용촌1리 666번지 조근석씨에게 최고 낙찰가인 380만원에 낙찰됐으며, 그밖에 우정종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85점) 슈퍼돈과 성현농장 듀록 수컷(선발지수 283점) 최우수돈이 각각 290만원에 낙찰되는 등 총 낙찰금액은 1억7천4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인의 날 시무소식

남성현 충남도협의회장, 충남도 농어촌 발전 대상 수상

본회 남성현 충남도협의회장이 11월 8일 충남 공주백제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2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농업인에게 수상하는 충남도 농어촌 발전



남성현 충남도협의회장

대상을 수상했다.

남성현 회장은 지난 79년부터 모돈 20두 규모로 양돈을 처음 시작해, 25년 동안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원가 절감 및 고급육 생산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해 왔다. 현재 8천8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이 2억8천600만원에 달해 대표적인 전업 양돈농가로 성장했으며, 그동안 성장단계별 개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왔다.

박호근 포천지부장, 경기도 농어민 대상 수상



박호근 포천지부장

본회 박호근 포천지부장이 11월 5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제9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중소가축 부문 농어민 대상을 수상했다.

박호근 지부장은 포천시 창수면 추동 2리에 서 돼지 1,800두 규모의 호산육종을 경영하고 있으며, 돼지 품종개량으로 출하일령을 단축시키고, 호흡기 질병에 강하며 번식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부위별 요리법 개발 및 무료시식회 등의 홍보행사를 통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효과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했다.

충북도협의회, 교체모돈 수출 추진 필리핀 조사단 파견

충북도협의회는 10월 20일~23일 교체모돈 수출 추진을 위해 필리핀 시장 조사단을 파견했

다. 이번 조사단은 각각 충북도협의회 전흥우 도협의회장, 충청북도 축산과 유호현, 보은지부 방희진 지부장, 영동지부 배상수 지부장, 옥천지회 조관현 지부장, 제천지부 김병화 지부장, 진천지부 이상기 지부장과 충주지부 장용기 지부장으로 구성됐으며, 조사단은 현지 검역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필리핀 육가공 회사를 방문해 한국산 돈육을 원료육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시찰했으며, 마닐라 백화점을 찾아 냉장육 및 캔제품 유통현황을 살폈다.

충남도협의회, 자조금 거출 적극 협력기로

충남도협의회(회장 남성현)는 11월 5일 김건태 명예회장(관리위원회 위원), 남성현 충남도협의회장, 차선수 당진지부장, 김응원 천안지부 총무 및 권춘석 천안지부 부지부장, 서석천 아산지부장, 유재형 부여지부장, 정일희 홍성지부장, 정재홍 보령지부장, 배형석 아산지부 총무, 윤석환 서산태안지부장, 이정식 서산태안지부 총무 등 12명이 참석하고, 충남도청 축산과 김흥근 계장이 배석한 가운데 충남 자조금 관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임원들은 양돈자조금 사업의 최근 추진 현황과 도별 자조금 납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갔다.

충남도청 축산과 김흥근 계장은 자조금 거출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남성현 충남도협의회장과 김건태 명예회장은 “행정에서 자조금 납입을 권유해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협, “자조금 납입률 상승 위해 노력할 터”

11월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과 김동환 부회장,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협의회 회의와 자조금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돈자조금과 관련해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협조 요청키로 했으며, 본회는 도별 양돈자조금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출금 납입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협의회에서는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자고 협의했으며, 이와 함께 겨울철을 맞아 질병관리와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김포지부, “제2회 김포시 축산인 체육대회”

김포지부(지부장 민경국)는 10월 27일(수)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소재 조각공원에서 “제2회 김포시 축산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양돈·양계·육계·한우협회 김포지부가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김포시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돼 축산업에 희망을 불어넣어 준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됐다고 평가 받았다.

본 행사는 김포축산업협동조합 및 김포시 사료연합회, 김포시약품연합회가 후원했다.

함안지부, 오제스키 발병 대비 협의

함안지부(지부장 함연수)는 10월 27일 함안지부 사무실에서 지부장 및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김해 오제스키 발병과 관련해 외부 떨어돼지 유입을 근절해야 한다고 결의했으며, 회원단합대회를 갖는 등 월례회의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서남지부, 비전농장 견학

서남지부(지부장 손용조)는 10월 23일 토요일 회원 및 회원가족 18명과 함께 본회 김건



태 명예회장의 경기도 흥성 비전농장을 방문했다. 이날 서남지부 회원들은 비전농장을 방문해 양돈 사양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으며, 각종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양돈**

전문가 무료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돈장의 고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경영 및 정책 ▲수급 및 돈가 전망 ▲사료 ▲질병 ▲사양 ▲시설 및 환기 ▲분뇨
▲번식 및 육종, 인공수정 ▲육가공 및 유통분야 등 33명의 분야별 전문가 전문상담

이 전문가 상담코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전문가 상담코너'를 클릭하세요. 양돈농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대한양돈협회 국문부 02)571-9751

대한양돈협회 www.koreapork.or.kr